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5박 16일 취재기

NEWSIS

조성봉 기자



2021
기자의 세상보기



2018년 6월13일자 현지매체 1면

프롤로그

통신사 기자는 늘 그렇듯이 국내외 사건, 사고를 취재하기 위해 언제나 마음에 준비를 해야한다. 네팔지진피해, 말레이시아에 발생한 김정남 살인사건 취재 때도 그랬는데 이번 북미정상회담 취재는 5월 29일 퇴근길, 출발 7시간 전에 데스크로부터 취재지시를 받았다. 원래 출발계획은 6월9일에 동료와 함께 출발 예정이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사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미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타사들의 취재경쟁이 시작돼 최대한 빠르게 출발하는 싱가포르항공 새벽 2시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다.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은 회담 장소 발표 이후에도 한번 취소된 적이 있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측 실무회담 대표단이 탄 차량 취재경쟁



김정은 국무위원장 숙소 앞을 지키고 서있는 취재진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취재 비표



취재하는 모습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도착 할때까지도 과연 성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끊임없이 생겼다. 6월9일 후발대가 올 때까지 혼자서 지내야하고, 사전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 영어도 짧아 조금은 막막한 취재였지만,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한 경험들로 인해 정말 힘들지만 재미있었던 취재였다. 기자생활 10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였던 15박16일 북미정상회담 취재 이야기들을 다섯 가지 에피소드로 정리해봤다.

뺨치기는 일상

맨땅에 헤딩할 때 가장 기본은 그 사람이 갈만한 곳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2주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북측 실무단이 머물고 있는 플러톤 호텔이

었다. 30일 새벽 6시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도착하지만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한국기자들의 연락을 받고 바로 간 찾아간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그랩을 타고 도착하자 한국기자들뿐만 아니라 AP, 로이터, EPA, AFP, 더스트레이츠타임스 사진기자를 비롯해 많은 취재진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싱가포르 현지기자로 보이는 기자에게 “넌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어?”라고 물어보니 “어 밤샘어 곧 교대할 거야”라고 대답을 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한시간정도 흘렀을까? 뺨치기가 고퍼져서 처마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하주차장에서 검은색 벤츠차량이 굉음을 내며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순간 본능적으로 차량에 달려가 카메라 16-35mm 렌즈를 빠짝 붙여서 셔터를 눌렀다. 뷰파인더에는 차량 창문 너머에

앉아있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 김창선 부장을 태운 차량을 찍는 일은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다. 항상 경찰이 경계를 섰었고, 항상 다른 통로로 빠져나가서 취재진과 기자들의 숨바꼭질은 계속됐다. 아침에 일어나 주싱가포르 북한대사관 → 플러톤호텔 → 센토사섬 카펠라호텔 앞 → 상그릴라 호텔 코스로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북미정상들의 숙소로 거론된 모든 장소에서 하루 14시간이 넘는 뺨치기는 계속됐으며, 그랩(Grab) 비용으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쓸 정도로 싱가포르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경호책임 간부를 만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오후 싱가포르

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이스타나궁에 리센류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기 위해 세인트리시스 호텔을 나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차량에 탄 모습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찍기도 하고, 나갈 때도 찍었지만 뭔가 아쉬움이 커서 정보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 장비도 들지 않고 관광객 모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머물고있는 숙소 로비에 들어갔다. 로비 입구에는 검문검색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로비와 엘리베이터에는 선그라스를 끼고 키 180cm에 깎두기 머리를 한 경호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여기에서 팬, 방송 기자들이 뺨치기를 하며 경호원들에게 말 한마디 못 나갔다고 하길래 기자정신으로 나는 로비에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경호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점검을 하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싱가포르 야경을 감상중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미정상회담 기사를 보고 있는 싱가포르 시민



숙소로 이동중인 트럼프

에게 다가가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전 통일뉴스 출신이고 지금은 뉴시스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조성봉 기자라고 합니다. 보드시피 장비도 안 가져왔고 그냥 이야기나 편하게 나눌까 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싱가포르 날씨가 무척 덥죠? 양복을 입고 경호해야해서 더 더우시죠?”

“아주 많이 덥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원수님(국무위원장)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뿐입니다. 일 없습네다”

“사진기자인데 (당신들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찍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고, 물론 오늘 차안에 탄 모습은 찍었는데.... 제대로 찍을 수 있는 기회가 한번정도는 있

었으면 좋겠네요”

“기자선생은 그렇지 않겠지만 남조선 언론들 몇몇은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너무나도 날조(왜곡보도)를 하는 것 같다. (북한이) 풍계리 취재 때 1만달러 입장료를 받았다고 하고 언론이 그러면 안된다. 기자선생은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잘 보도해주리라고 생각한다. 혹 찍게 된다면 잘 찍어주시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6:15우 리민족대회, 남북적십자 회담, 남북공동행사 취재 때 알게 되어 오래전부터 의형제를 맺은 조선중앙통신 김00 기자의 안부도 물어볼 수 있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상대방이 절대로 답하지 않을 질문을 던졌다.

“전 2주전에 여기에 와서 둘러보니 싱가포르 야경이 참 멋지던데 내일(11일) 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간부들) 밖으로 나올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는 아무말 없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악수를 건넸다.

미국 측 실무대표단 차량과 대낮에 레이싱을

싱가포르는 처음이다 보니 비슷한 이름의 호텔도 많고, 헷갈리는 곳이 많았다.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성 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섉희 북 외무성 부상이 실무회담장인 싱가포르 리즈칼튼 밀레니아호텔에서 만날 예정이었다. 그 날따라 그래프가 잘 잡히지가 않아서 불안 불안 했는데 초보 그래프운전사가 리즈칼튼 밀레니아호텔이 아닌 리즈칼튼 레지던스 호텔로 데려다 준 것이다. 그 호텔은 인적

이 드문 곳이라 그래프를 기다려도 잘 안잡히고 해서 무조건 택시를 잡아 “Let’s go to the Ritz-Carlton Millennia Hotel. Please do it as quickly as possible”라고 외치며 회담장소로 향했다. 네비를 찍어보니 시간은 거의 회담시간 바로 직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택시 기사에게 계속 빨리 가달라고 했고, 택시 기사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엑셀을 밟으며 속도를 내고 있었다. 이때 뒷좌석에 앉아 있던 나는 잠시 고개를 돌렸고 바로 옆 차선에 아이보리색 차량을 타고 나를 보며 씨익 웃고 있는 한 남자를 보며 너무나도 놀랐다. 오마이 갓~~미국 측 대표단의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였다. 너무나도 놀란 나는 이러다가 물을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택시 기사에게 목이 터져라 외쳤다, “GO GO GO, I’m on the verge of crying!”



경찰에게 연행당할 뻔한 모습

택시기사는 신호를 어겨가며 미국 대표단이 탄 차량을 따돌렸고 그들이 도착하기 10초전에 나를 실무회담 장소로 데려다 주었다. 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지금 10초 후에 미국 측 대표단 차량이 도착합니다”라고 외쳤고, 미리 도착했던 선배기자들의 양해로 출입구 주변에 앉아서 취재할 수가 있었다. 다시 한번 이 취재후기를 통해 택시 기사분과 자리를 양보해준 선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어딜가도 인사를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체감온도 40도가 넘는 땡볕에 14시간 동안 뺨치기를 하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더위로 인해 숨도 턱턱 막히고, 배도 고팠다. 그렇다고 그냥 나 혼자서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먹을 걸 사오는데 한국기자 동료들것만 사오기도 뭐해서 가끔 음료수도 주면서 현지 기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역시 뺨치기 장소에서 지루함을 달랠 가장 좋은 방법은 수다모드

“넌 어디서 왔냐? 몇 년동안 사진기자 일을 했냐? 너희들 데스크는 어때냐? 역시 전 세계 데스크들은 다 똑같구나, 나이는 몇 살이냐? 언제 싱가포르에 왔냐? 북미정상회담 장소는 어디로 확정될 것 같니?”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서로의 연락처, 페이스북 주소를 알게 되었고,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북미정상회담 취재는 기자들의 명함 모음

이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아서 내가 없는 현장에서도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다.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일 저녁 야간에 마리나베이샌즈 스카이프크와 에스플러네이드(오페라하우스) 앞 다리 등에 싱가포르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외무장관과 함께 나타날 거라는 결정적 정보 또한 정보공유를 하자고 한 싱가포르주재 A사 동영상 기자인 N기자를 통해 알게 되었다.

물을 먹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건 마리나베이샌즈 입구와 에스플러네이드 인근 다

리 둘중에 어디로 가야할지 망설이는 내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성봉! 에스플러네이드 인근 다리로 와 여기가 메인이야”라고 말해줬기 때문이다. 현장에 도착 후 약 한시간만에 탄피에 총을 두른 방탄경호단이 먼저 나타났고, 그 뒤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외무장관과 옹예쿵 전 교육부 장관, 그리고 TV에서만 보던 김영철·리수용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로광철 인민무력상,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모습이 보였다. 난 경호팀 사이로 보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셔터를 미친 듯이 눌렀다. 15박16일 출장기간동안 가장 짜릿한 순간 이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북한 사진 전문가 아람판(Aram Pan)을 만나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취재가 끝나고
서야 비로소 만나게 아람판 사진작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잘 알고 있는 아
람판 사진작가는 2013년 8월 첫 북한여
행을 시작해 최근까지 18번, 140여일을
여행하며 사진과 영상으로 북한의 모습을
기록했다.

아람판 작가와는 그전부터 SNS로 알
던 사이였고, 신년 사진기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해지게 되었다. 최근에 다녀온
제21차 평양북국제상품전람회 이야기를
듣고, 영상도 보고, 변화하는 북의 모습
들에 대해서도 사진과 영상으로 볼수 있
었다. 특히 미공개 사진들과 VR 360으로
찍은 사진들은 너무나도 새로웠다. 아람
판 사진작가는 1-2주 후 또 북한 원산 에
어쇼에 갈 계획이라고 했다. 자유롭게 북
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진과 영상을
찍는 모습이 한편으로 참 부럽기도 했다.

“싱가포르인인 나보다 같은 민족인 너
가 가게 된다면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남북관계가 하루 빨
리 좋아지길 바래.”

북미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
고, 남북관계도 좋아지고 있어서 하루빨



북한전문 사진작가 아람판과 함께

리 나도 예전처럼 금강산과 개성도 놀러가
고 형님처럼 평양 시내와 원산도 자유롭
게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했
다. 곧 모든 꿈들이 현실이 될 것이다.

에필로그

북미정상회담 모든 취재를 마치고 싱
가포르를 떠나기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에스플레네이드 인근 다리에서 비비안 발
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함께 셀
카를 찍으며 바라본 싱가포르의 야경은
어땠을까 궁금해서 그 자리에 가봤다. 관
광객들이 서로 그 자리에서 셀카를 찍으
며 추억을 담고 있었다.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머리카락 한 올도 보지 못



싱가포르 야경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둘 다 카메라에
오롯이 담을 수 있어서 흥분한 마음에
나도 그 자리에서 인증 샷을 한 컷 찍었
다. 취재를 하다가 싱가포르 경찰 7명에게
둘러싸여 잡혀갈 뻔하기도 하고, 땀별에
어지러워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지만 모든
미션을 성공적으로 끝마쳤고 웃으며 싱가
포르를 떠날 수 있었다.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어느덧 3년이 다되어가고 있는 지금,
싱가포르 취재를 다녀오고 나서 북미관
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 더욱더 관
심이 많아졌다. 이후로 하노이 북미정상회
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으로 남북관계
도 소원해져 안타까운 마음이다. 하지만

2021년은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회복
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와 미국
존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원칙’ 제시로 북미 관계는 새로운 전
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북미가 70여년 간
대결 상황이었다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서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는 메시지가 북한에 잘
전달되어서 서로간의 오해와 편견을 해소
하고 새롭게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했
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
화’ 과정에서 사진기자로서 그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다. 📷